즉시 보도용
2024년 5월 20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LA시**,** 스몰 비즈니스 성장과 발전 지원 위한 더 많은 도시 자원 출시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LA시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추가 자원을 발표했다. 시장의 리더십 아래, LA시는 1. **LA Optimized 2.0**: 스몰비즈니스의 디지털 입지를 구축 및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 2. **LA Proneur:** 비즈니스 관련 온라인 학습 플랫폼 두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런 배스 시장은 "우리는 앤젤리노가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추가 자원과 앤젤리노가 지식을 심화하고 비즈니스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친비즈니스 LA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자원들은 소규모 비즈니스가 도시에서 시작, 성장 및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작업의 일부이며 우리의 권장 사항은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 **LA Optimized 2.0 :** 이는 비즈니스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을 개선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브랜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경제 인력 개발부(EWDD)의 프로그램이다. 최대 500개 기업이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생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최대 1,000개 기업이 디지털 평가와 디지털 존재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추천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American Rescue Plan Act 기금과 알레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 **LA Preneur:** 이는 시장실과 비즈니스 소스 센터,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및 기타 파트너들에 의해 설립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과 자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실 산하 중소기업 내각이 제공한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회원들은 유색인종 기업가 정신 지식 커뮤니티의 격차와 시가 소규모 기업을 기존 자원에 연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바 있다.

새로운 자원의 공개는 500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기업가들을 끌어들인 LA시와 카운티 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제 4차 LA지역 스몰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서밋은 기업을 위한 기회와 적시의 자원에 초점을 맞춘 패널 토론, 비즈니스 평가, 법률 지원, 인증 및 조달 클리닉, 신용상담, 규정 준수 지원 및 허가 지원을 포함한 현장 무료 서비스의 모든 주요 공공 및 민간 제공자를 소집한 자원 엑스포다. 올해 이전 서밋에는 약 1천명의 사람들이 행사를 방문했다.

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시 부서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와 거래한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를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개방하는 데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배스 시장은 이번 서밋과 같은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출,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고 시 부서가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행정명령4호를 발표했다. 배스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는 LA로 이전하는 캘리포니아 은행을 포함, LA로 사업을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과 LA 컨벤션 센터의 현대화를 모색함으로써 다운타운과 우리 경제를 도시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